

학령기 아동의 자아특성과 대인관계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의 판별분석

공 인 숙(순천대 교수) · 민 하 영(대구기톨릭대 부교수)

경제적 어려움이나 빈곤은 생애 초기 아동의 건강,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지적(Duncan & Brooks-Gunn, 1999)되고 있다.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훌륭히 수행하는 아동들이 있다. 빈곤이라는 물질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서 높은 적응력을 갖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? 아동의 학교적응이 자아통제나 자아탄력성 등 자아특성에 의해 설명되거나 부모나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대인관계특성에서 설명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,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층 아동 역시 자아통제나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특성이나 어머니와의 관계나 또래와의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특성에 따라 학교적응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.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아동과 학교적응이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 아동들이 아동 자신의 개인내적 요인인 자아특성과 환경외적 요인인 대인관계특성에 의해 신뢰롭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판별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. 이를 위해 학령기 아동의 자아특성(자기조절, 자아탄력성)과 대인관계특성(모애착, 또래애착)은 학교적응이 높은 저소득층 아동을 판별할 수 있는 예측력이 있는가?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. 그리고 대구지역 내 4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, 5, 6학년 아동 677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한 후 소득이 250만 이하의 335명 자료 중 215명만 SPSS WIN 19.0 프로그램의 판별분석을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. 연구결과 추출된 판별함수는 자아특성 중 자기조절과 자아탄력성이 그리고 대인관계특성 중 또래애착과 모애착으로 구성되며, 이들 변인은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예측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.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이 저소득층 아동 중 학교적응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는 대표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.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보다 많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.

판별함수계수에 의해 분류된 결과를 보면 판별함수는 92.3%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우연에 의해 분류될 확률(50%)보다 높은 것으로 자아특성 중 자기조절과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특성 중 또래애착과 모애착은 두 집단을 충분히 구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. 이 연구는 저소득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역경이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응 유연적 보호요인이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를 가진다.